

매직넘버 6... 남은 경기 6... 고춧가루 부대 넘어라



공동 1위에서 힘겨운 우승 도전을 하게 된 KIA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의 2017시즌 홈 최종전을 치른다. KIA는 100만 관중 돌파를 기념하는 유니폼을 입고 팬들의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KIA타이거즈 제공>

■ KBO리그 팀순위 (25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38	82	1	55	0.599	0.0
1	두산	140	82	3	55	0.599	0.0
3	롯데	141	77	2	62	0.554	6.0
4	NC	140	76	2	62	0.551	6.5
5	SK	141	73	1	67	0.521	10.5
6	넥센	141	69	2	70	0.496	14.0
7	LG	138	67	3	68	0.496	14.0
8	한화	138	61	1	76	0.445	21.0
9	삼성	140	53	5	82	0.393	28.0
10	kt	139	48	0	91	0.345	35.0

T 타이거즈 전망대

가다왔던 잔칫날이 KIA 타이거즈의 쓸쓸한 마지막날이 됐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와 경기를 치른다. 안방에서 열리는 2017시즌 72번째 경기, 정규 시즌 마지막 홈경기다. 기대했던 마지막날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반기가 끝났을 때만해도 우승 확정은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느긋하게 우승 결승선을 통과한 뒤 홈 최종전에서 팬들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스트 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그림을 그렸다. 위기의 후반기가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오늘 LG와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양현준 선발

한화·kt와는 원정경기...불안한 1위에 부담감 가중

달라졌다. 그래도 5연승을 달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을 때만해도 100만 관중 돌파와 한국시리즈를 그리며 홈 최종전 잔치를 치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올 시즌 KIA의 불안 요소로 꼽혔던 부분들이 한 번에 터진 지난 3일 '고척참사'로 KIA의 우승 행보가 달라졌다. 결국 KIA는 지난 23일 100만 관중과 팀 최다승(82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고도 우울하고 긴박한 홈 최종전을 치르게 됐다. 매직넘버 7에서 잔여 경기 일정을 시작

했던 KIA는 지난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했다. 사실한 2패나 다음엔 치명적인 패배도 기록됐다. 지난 22일 '디펜딩 챔피언'인 2위 두산 베어스와 시즌 최종전에서 KIA는 0-6 영봉패를 당했다. 1위 팀 명함을 내밀기에도 부끄러운 일방적인 패배였다. 그리고 24일 8위 한화 이글스와 경기에서도 팻전이 또 불운에 울면서 0-5 영봉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KIA는 두산에 공동 1위 자리를 허용했다. 역시 전력

100% 활용하지 못한 벤치의 전략이 아쉬웠던 패배라서 팬들의 실망은 컸다. KIA가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뜨거웠던 2017시즌을 함께 달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무대로 홈 최종전을 준비했지만 자존심 구긴 팬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선수단 내부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줄곧 지켜왔던 1위 자리를 위협받으면서 선수들의 부담감이 커졌다. 2군에서 16일 만에 풀업되자마자 지난 24일 한화전에서 지명타자로 나섰던 신중길도 갑작스레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경기가 끝난 뒤 바로 2군행 통보를 받기도 했다. 매직넘버 6에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

KIA에 남은 경기도 6이다. 대역전극의 주인공을 꿈꾸는 두산은 4경기가 남았다. KIA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 계산할 것 없이 일단 다 이기고 봐야 하는 위기의 일정이야. 6연승이라는 어렵지만 절박한 목표를 위해 양현준이 홈 마지막 무대에 선다. LG 김대현과의 맞대결을 통해 양현준은 20승 불씨 살리기도 나쁘지 않다. 이후 고춧가루 부대로 맹활약하고 있는 8위 한화와 최위 kt가 KIA를 기다린다. 28·29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이어 KIA는 10월 1일부터 수원에서 kt와 운명의 3연전을 치른다. 홈 최종전이 끝난 뒤 KIA 선수들이 어떤 표정으로 팬들 앞에서 서게 될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페더러 맹활약...유럽 대표팀, 레이버컵 테니스 우승

닉 키리오스 2-1 제압 인터내셔널에 15-9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가 맹활약한 유럽 대표팀이 제1회 레이버컵 테니스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페더러는 24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017 레이버컵 테니스대회 마지막 단식에 출전한 인터내셔널 팀의 닉 키리오스(20위·호주)를 2-1(4-6 7-6(8-6) 11-9)로 제압했다. 유럽과 인터내셔널의 대항전인 레이버컵은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과 비슷한 형식으로 올해 창설됐다. 전날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과 복식에서 호흡을 맞춰 승리를 따낸 페더러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단식 두 경기와 복식 한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이 대회에 출전한 유럽과 인터내셔널 팀 선수 6명씩 총 12명 가운데 3전 전승을 거둔 선수는 페더러가 유일하다. 페더러의 활약에 유럽은 인터내셔널 팀을 15-9로 몰리치고 첫 대회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대회 유럽 단장은 비외르 보리(스웨덴), 인터내셔널 단장은 존 매켄 로(미국)가 맡았다. 2018년 제2회 대회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예정이다. /연합뉴스

▶ 24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1회 레이버컵 테니스대회' 마지막 날 단식에서 로저 페더러(아래)가 닉 키리오스를 2-1로 몰리치고 유럽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자 라파엘 나달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도미니카 윈터리그 뒤편다

피츠버그 제한선수 신분 유지

비자를 받지 못해 올 시즌을 날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제한선수 신분을 유지한 채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게 됐다. 닐 헨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25일 피츠버그 지역 신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와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강정호는 제한선수 신분으로 윈터리그에서 뒤편다. 제한선수를 유지할 수 있는 몇몇 예외 조항이 있다. 강정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유증상 태로 사고를 낸 뒤 11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못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3월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 이 기간 선수는 25일·40일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여도 받을 수 없다. 대신 피츠버그 구단은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구단 아킬라스 시바이나스 입단을 추천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윈터리그는 다음 달 20일 개막한다. 헨팅턴 단장은 "우리는 강정호가 경쟁력을 되찾아 타석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정호가 내년에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만약 그가 복귀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선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정규리그 마지막 선발 필까

강한 타구에 왼쪽 팔뚝을 맞은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투수들의 무덤'인 쿠어스필드에서 올해 정규리그 마지막으로 선발 등판할지 시선이 쏠린다. AP 통신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앞서 전날 조 패닉의 시속 151km짜리 강한 타구에 왼쪽 팔뚝을 맞고 교체된 류현진이 4~5일 후 선발 등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류현진의 구체적인 통증 치유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류현진은 3회 초 패닉의 타구에 맞고 즉시 교체됐다. 다저스 구단은 X레이 검진에서 뼈에는 이상이 없으며 타박상이라고 발표했다. 류현진이 공을 쥐는 데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4~5일 후 마운드에 선다. 다만, 공을 힘있게 잡아채지 못한다면 다른 투수에게 선발 자리를 주고 시즌을 마감할 수도 있다. 다저스는 26~28일 샌디에이고와의 3연전을 마치고 29일 하루 쉬 뒤 다저스는 30일부터 10월 2일 쿠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정규리그 마지막 3연전을 벌인다. 로버츠 감독의 예상과 정상 선발 루테이 선대로라면 류현진은 30일 또는 10월 1일 콜로라도와의 경기에 정규리그 마지막으로 등판한다. 포스트시즌에서 선발로 뛰려면 경기 감각 유지 차원에서라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던질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월드그랑프리 태권도

이대훈 7번째 금메달

한국 태권도 간판스타 이대훈(한국가스공사)이 개인 통산 7번째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대훈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의 프린스 무라이 압델라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2017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2차 대회 마지막 날 남자 68kg급 결승에서 황위린(대만)을 13-9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7-6으로 근소하게 앞서며 접전을 펼쳤으나 3라운드 초반 몸통과 머리 공격에 잇달아 성공해 승리를 굳혔다. 이로써 이대훈은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1차 대회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우승과 함께 자신의 7번째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대훈은 대만의 기대주 황위린과는 지난 6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같은 체급 결승에서 맞붙어 26-8로 승리하고 대회 통산 3번째 금메달을 챙긴 바 있다. 무주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 최유수선수이자 모스크바 1차 대회 우승자인 여자 57kg급 이아름(고양시청)도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으나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아름은 준결승에서 무주대회 결승 상대였던 터키의 하티스 쿠브라 일군에게 8-14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아름에게 실속한 일군은 결승에서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세계최강 제이드 존스(영국)를 8-6으로 꺾고 그랑프리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올해 월드태권도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는 10월 20~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하루 전날인 내달 19일에는 제7회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